

# 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## 기후·에너지 정책

### ◆ 튀르키예-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협력 동향(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)

-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(Alparslan Bayraktar) 튀르키예 에너지·천연자원부 장관은 3.19.(수)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△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(Serdar Berdimuhamedov) 대통령 △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(Gurbanguly Berdimuhamedov) 최고지도자 △바티르 아마노프(Batyr Amanov) 석유·가스 부총리 △막사트 바바예프(Maksat Babayev) 투르크멘 국영가스공사 회장 등과 회담 등 일정을 수행함.
  - (대통령 예방) 양측은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튀르키예 및 기타 국가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강화 의향을 표명
  - (최고지도자 예방)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튀르키예 및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으며, 튀르키예 측의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
  - (석유·가스 부총리 등 예방) 양측은 튀르키예 석유 공사(Turkish Petroleum Corporation, TPAO)의 투르크메니스탄 탄화수소 탐사 참여 등 양국 간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 논의

## 석유·가스

### ◆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 동향(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)

- 러시아 국영 언론사 TASS 보도, 중국 관세청 발표 등에 따르면, 2025년 1월~2월 러시아의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.2% 증가한 17.5억 달러로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국 1위로 집계됨.
  - 동 기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.3% 감소한 13.8억 달러로 2위를 기록
  - ※ 중국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액(2025년 1~2월, 총 36.2억 달러): 1위 러시아(17.5억 달러), 2위 투르크메니스탄(13.8억 달러), 3위 미얀마(2억 달러), 4위 카자흐스탄(1억 달러), 5위 우즈베키스탄(0.4억 달러)
- 2025년 1월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량은 러시아가 3.4bcm, 투르크메니스탄이 2.3bcm을 기록함.
  - ※ 중앙아시아(투르크메니스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) 국가들의 2025년 1월 대(對)중국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량은 겨울철 국내 수요로 인해 여름철 최대치 대비 약 1bcm 감소. 끝.